

5/15/22

설교 제목: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2장 1-12 절

가나의 혼례

- (요 2: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 (요 2: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 (요 2: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절관주** 눅 11:6
- (요 2: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절관주** 요 19:26
- (요 2: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 (요 2: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절관주** 막 7:3
- (요 2: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 (요 2: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 (요 2: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절관주** 요 4:46
- (요 2: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 (요 2: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절관주** 요 1:14
- (요 2:12)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성경은 이적과 기사 (wonder), 기적 (miracle) 그리고 표적 (sign)으로 가득합니다.

이적 기사 기적 표적은 모두 상식이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이적이나 기사, 기적과 표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적이나 기사 기적과 표적은 모두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사건을 말하지만 그중에서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표적은 행하는 자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표적에는 행하는 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여덟 가지 표적들을 그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수록해 놓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덟 가지 표적입니다.

1.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2:1-11)
2.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4:46-54)
3. 예루살렘에서 38 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5:1-9)
4.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 (6:1-13)
5.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6:16-21)
6.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9:1-41)
7.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11:1-44)
8.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20,21)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여덟 가지 이적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분류하여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 이적들을 베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여덟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선포하는 모든 표적 가운데 으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 중 이 여덟가지 이적들을 특별히 표적으로 분류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 20: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표적 믿음 영생은 요한 복음의 핵심 단어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덟 가지 표적들 중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첫 표적을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 2: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 주심으로써 믿음의 확신을 불러 넣어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이책의 저자 사도 요한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요 2: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요 2: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아직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그의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아갔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미 거기에 가 계셨던 것으로 보아 예수님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던 집안의 혼인이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 잔치를 보통 일 주일에서 이 주일 동안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들 혼인 잔치 도중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요 2: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기쁘고 즐거워야 할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흥과 즐거움이 깨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문제의 해결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신비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되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몸에 잉태되어 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위를 잇는 왕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눅 1:30)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눅 1:31)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눅 1: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눅 1: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눅 1: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눅 1:3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출산했을 때 그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 주이신 구주가 나셨다고 했다고 말했고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눅 2: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눅 2: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눅 2: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눅 2: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눅 2: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눅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눅 2: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눅 2: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눅 2:18)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눅 2: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런 연유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간직했을 것이고 난감한 문제가 생기자 예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부탁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 2: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하고 무례하게 들립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대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생긴 오해입니다.

당시 원어인 헬라어 '여자여'는 무례하기 보다는 오히려 존중과 사랑을 담은 일반적인 여자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어머니와 하나님의 사역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는 아직 사람들 앞에서 어떤 표적을 보일 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비록 모친이라 하더라도 메시아의 구속 사역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친의 뜻으로 메시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합니다.

(요 2: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요 2: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요 2: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요 2: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아귀까지 가득 채웠으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에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연회장은 연회 손님들 중 주빈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거역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연회장은 포도주 맛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제자들 하인들만이 알았습니다.

(요 2: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요 2: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무소불능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이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 2: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목적하신 바 곧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는 메시아의 증표로서의 권능을 나타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요 2:12)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던 고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맞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본 책은 이외에도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세 번 더 유월절을 지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표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말로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롬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 38: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 38: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 38:5)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욥 38:6)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욥 38:8)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욥 38:12)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욥 38:16)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욥 38:17)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욘 38:18)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욘이 대답합니다.

(욘 42:1) 욘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욘 42:2)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욘 42:3)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욘 42:4)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욘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욘 42: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 59:1)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 59:3)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

(사 59:4)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사 59:7)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사 59:8)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이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냅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